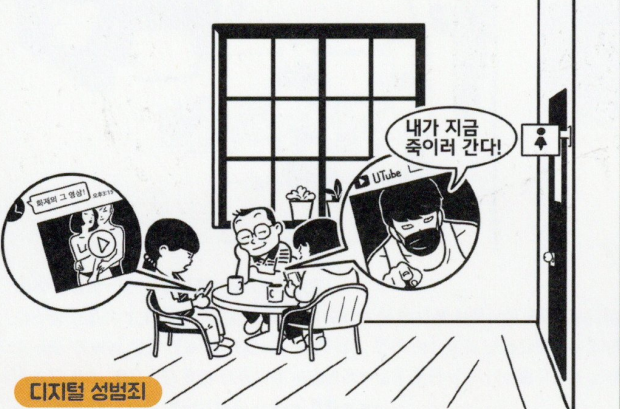


우리 사회 속 폭력의 모습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소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은 디지털 성범죄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에 비해 2017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명 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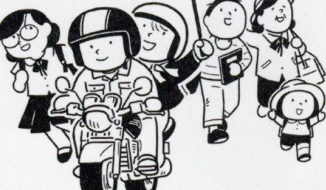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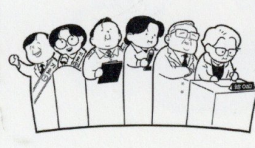
※ 경찰청, 2017년 「데이트 폭력 발생현황」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https://shop.mogef.go.kr/shop/front/main.do> · 03171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09 (공평동) TEL. 02-210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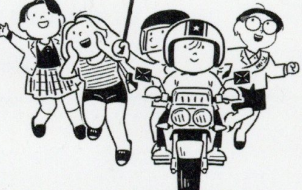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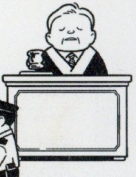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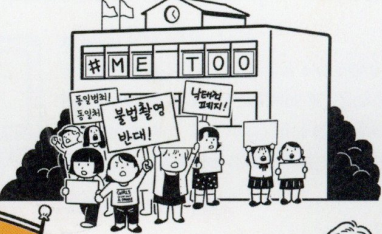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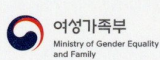
‘다들 물어봐’를 내리다 통나다 내리다 고령 이다를 이다를
‘다들 물어봐’를 내리다 통나다 내리다 고령 이다를 이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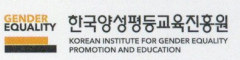


**성평등,
모두에게 즐거운 상상**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GENDER
EQUALIT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광장에 울려 퍼진 여성들의 외침, 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최근 #미투 등 여성들이 이끄는 다양한 운동은 성차별·성폭력의 문제가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폭력 피해자 여성 비율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비율
94.2%	89.2%	86.7%



폭력 피해에 취약한 여성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성폭력,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폭행 피해 여성은 6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폭력, 강력범죄, 성폭력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여성입니다.

※ 대검찰청, 2016년 「범죄분석」 (성별 미상 제외)

성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집안일은 여자가 더 잘하니까~



커피 두 잔~

우리 짝사랑 김사원 결혼은 언제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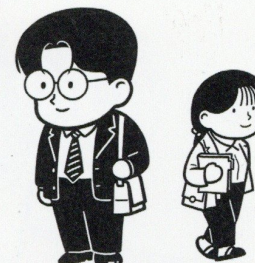
사내대장부는 큰 일을 해야지!

여성의 일 따로, 남성의 일 따로?

통계청 <2016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50분, 여자는 4시간 19분이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이중적 기준은 사람들 각각의 특별한 능력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라는 틀로만 판단하게 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에서 주요 업무는 남성이 맡게 하는 성차별적 업무 배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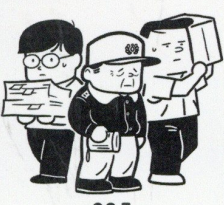


63.9%

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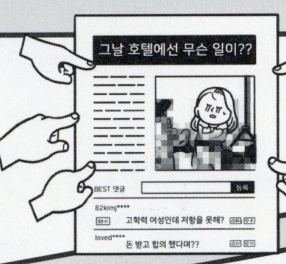


26.3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적 대우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여성은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힘들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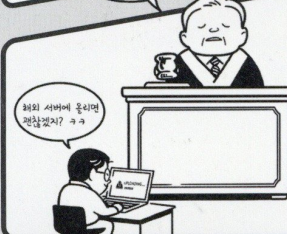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를 둘러싼 성차별적 상황들

성차별적 문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는 의심과 불신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폭력을 동조·지지하는 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문제의식 없이 더욱 확대됩니다.

공 많은 청년아니.. 집행유예!



성차별적 법과 제도

더 큰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법과 정책, 수사기관이 때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곤 합니다.

폭력의 순환고리 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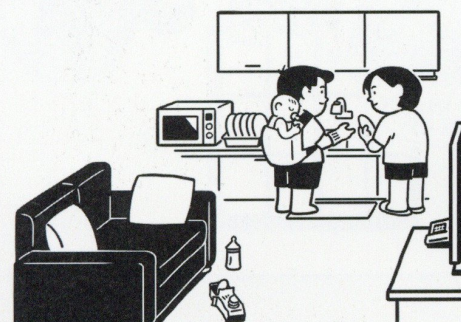
성별 권력이 폭력이 되기까지

힘의 차이, 즉 권력은 신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직급·연령·학력 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폭력은 관계에 있어서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력, 사회적·정치적 지위가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폭력에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불평등과 폭력의 상관 관계

결국 사람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구조적 불평등은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이 폭력의 순환고리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는 학교·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창구를 운영합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 허용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개인이 인식 전환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평등이란?